‘영어 인증제’ 학생 참여 활발

광주 동부교육청 실시 원어민과 1대1 대화로 자신감 키워

광주 동부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생활영어 활용능력인증제’(이하 인증제)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회화 실력 향상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2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가 영어 인터뷰를 실시, 5개 단계 중 4단계 이상 대답을 한 학생에 한해 동부교육장 표창과 인증서를 주고 있다.

인증제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진단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것으로, 29개 중학교 3천289명(총 8천600명의 38%)이 참여했다.

영어 인터뷰는 살레시오고·체육고 등 10명의 원어민 교사가 학생과 1대1로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이 입은 옷의 색깔은?’‘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당신 친구의 성격 중 어떤 면이 좋은가요?’ 등의 유형으로 5개 문항을 물어보는 방식이다.

동부교육청 중등교육팀 오경미 장학사는 “학생들이 인터뷰를 스스로 준비하면서 원어민과 대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인터뷰 외에도 ‘영어교재 통째로 외우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림중학교 2학년 정모(14)양은 “인터뷰 신청을 한 뒤 무척 떨렸는데, 막상 원어민과 대화를 하니 자신감이 붙었다”며 “앞으로 영어공부 중 회화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과연 다섯 문항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강제 동원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난달 29일 광주 문산중에서 열린 ‘생활영어 활용능력 인증제’ 인터뷰. 원어민 교사 10명이 2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학생 4,722명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 초등 6학년 노출 심해

광주시내 초·중·고교생 4천700여 명이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는 인터넷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광주시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20만9천7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25%인 4천722명이 흔히 중독으로 불리는 ‘고위험 사용자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검사 결과

학교급	학생수(명)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학생 수(명)	비율(%)	학생 수(명)	비율(%)
초등학교	90,120	2,823	3.13	11,222	12.45
중학교	65,287	1,360	2.00	5,281	8.09
고등학교	54,323	593	1.09	4,059	7.47
계	209,730	4,722	2.25	20,562	9.80

이 중 초등학생이 2천823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1천360명(2%), 고등학생 593명(1.09%) 등이었다.

‘고위험 사용자군’을 학년별로 구분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이 4.82%로 인터넷 중독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었고, 그 뒤를 초등 5학년(3.16%), 초등 3학년(2.30%), 초등 4학년(2.13%), 중학 2학년(2.09%), 중학 1학년(2.06%) 등 순이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전체의 9.8%인 2만562명이었다.

초등학생이 조사대상의 12.45%인 1만1천222명으로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중학생 5천281명(8.09%), 고등학생 4천59명(7.47%) 등이 다음을 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인문고 한 교사의 넋두리 편지

“가르치는게 그냥 좋기만 했는데… 삭막한 학교, 소신 지키기 힘들어”

“학교가 진짜 삭막한 것 같아요. 관리자들 욕하고는 승진 위해 점수따면서 점점 그 관리자들 닮아가고,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 같은 행태를 벌이는 시스템…. 소신이라는 것, 지키기가 어렵네요.”

광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전교조 광주지부 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편지에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인문계 고교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인문계 고교에서의 경험이 일천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교사는 “애꾸눈 마을에 가면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바보가 되듯 요즘 딱 그런 기분”이라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썼다.

이어 “관리자와 소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근무조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입 다무는 어르신들, 몸 사리는 젊은 사람들, 이기지 못할 싸움이니 잠자코 있자는 사람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득(점수나 돈)이나 챙기자는 사람들, 분명 화가 나는데 화도 못 내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도 황당했다”고 밝혔다.

또 “수준별 수업은 소위 상위권이라 부르는 소수 학생을 위한 수업이고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우열 수업일 뿐인 것 같다”며 “상위권 외의 아이들도 다 괜찮은 애들인데 왜 들러리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껏 소신껏 하다 보면 손해도 많이 보고 오해도 많이 받고 순진하다는 비웃음이나 당하게 된다”며 “가르치는 게 그냥 좋기만 했는데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하고 알면 알수록 교직생활이 어려워진다”고 썼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터넷 이웃돕기 사칭 ‘주의’

공동모금회, 3건 고발

가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성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연말 이웃돕기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공동모금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유사 인터넷 사이트가 네티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www.hand119.or.kr’ 사이트 등 공동모금회를 사칭하는 3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이트는 기부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네티즌들에게 무작위로 보내 개인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초기에 적발돼 현재까지 피해액은 30만원에 불과하다”며 “공동모금회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들어감에 따라 유사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 측도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지 않고 ▲이메일 등을 통해 먼저 기부를 권유하지도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

“故 김선일씨 피살 국가 과실 없었다”

2004년 고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과정에서 국가의 과실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씨의 아버지와 누나 등 유족 4명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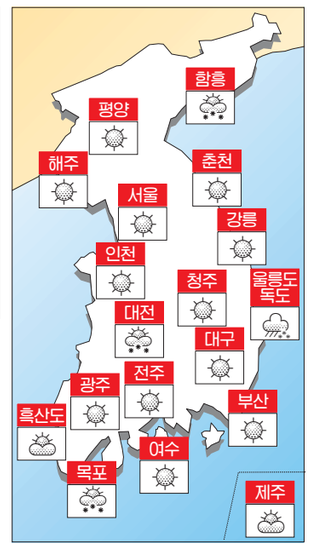
재판부는 “국가가 추가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질 납치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방법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씨를 구출하지 못해 그 대응방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서 이를 김씨에 대한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아이 추워”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떨어져 춥고,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12월 4일 (음 10월 25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1~4℃
목 포	구름 많고 한때 눈	0~5℃
여 수	맑음	0~6℃
완 도	구름 조금	1~5℃
구 례	구름 조금	-2~4℃
해 남	구름 조금	-1~5℃
장 흥	구름 조금	-1~5℃
고 흥	맑음	-1~6℃
순 천	구름 조금	-2~4℃
영 광	구름 많고 한때 눈	-2~6℃
진 도	구름 많고 한때 눈	2~7℃
전 주	구름 조금	-3~4℃
남 원	구름 조금	-5~4℃
흑산도	구름 많음	4~5℃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4.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4.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10:22 22:31 썰물 03:16 15:35
여 수 밀물 05:35 17:40 썰물 11:27 23:57

▲해뜸 07:24 ▲해짐 17:20 ▲달뜸 02:14 ▲달짐 13: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날 씨						
최저/최고	-3/7	0/10	2/11	0/12	-1/10	-1/11

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1,810억원 누수… 보험료 인상 초래

⑨ 판치는 ‘나이롱 환자’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 때문에 매년 1천810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누수 된 보험금은 결국 국민이 내야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광주를 비롯한 전국 13개 도시 709개의 병·의원 교통사고 입원 환자 4천165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1%인 667명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가짜 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로 드러났다.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도 매년 1천8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총 규모는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이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1만67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5천736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양측은 14~30명씩 점검반을 편성해 ▲환자가 병실을 비우는 시간 ▲외출·외박 원인 ▲환자복 탈의 상태 ▲식사 여부 ▲약 복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받아 피해자인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불구속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은 보험범죄를 탈세 다음으로 중대한 경제 범죄로 인식해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정성인 팀장은 “지난달 1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서 “이제부터 외출·외박사항을 허위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